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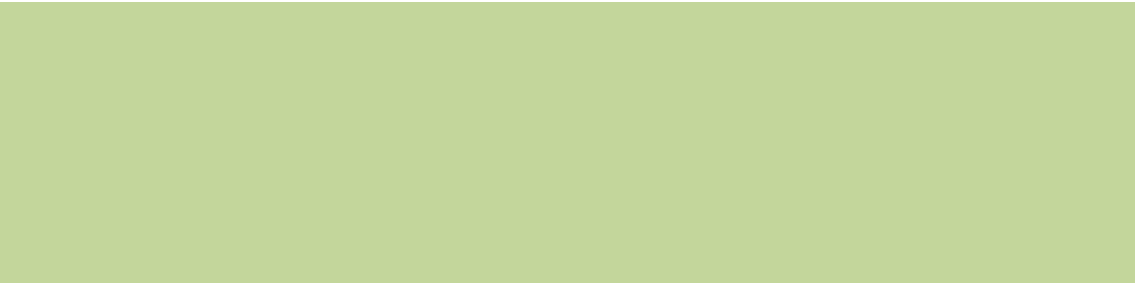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2011-2012 겨울호



제 13 회 UNEP FI Global Roundtable

경제 회복이 미국과 국제 정치적 아젠다를 넘어서는 것을 포함하여 지난 달 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UNEP FI Roundtable에서 前 영국 총리 Gordon Brown, 아일랜드의 대통령 Mary Robinson과 함께 CEO, 주요 투자자 및 은행가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개혁을 요구했다.



Global Roundtable 오프닝 세션

미국에서 영국, 일본, 그리스에 이르기 까지 여러 나라에서 경제적 우려를 강조하는 커지는 시위의 물결 속에서, 세계 각국 500명 이상의 고위 간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변동 요인을 다루기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심화되는 빈부간 균열에 대해 고심하기 위해 본 정상회담에 모이게 되었다.

“분명 금융 세계는 보다 공정하고 환경적인 경제로 이끄는 메커니즘을 창출하는데 본분을 다 해야만 한다. Global Roundtable 동안 제기된 제안들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튼튼한 로드맵이다. Roundtable의 결과는 현재의 경제 체제에 의해 소외됨을 느끼는 99%에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실로 매우 시기 적절하다.” 고 前 아일랜드 대통령 매리 로빈슨은 전했다.

권장 사항으로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신형 산업 - 청정 에너지 부문, 재생에너지, 그린빌딩 및 보강작업, 청정차량과 연료 - 에 은행 및 투자계의 규모 있는 투자를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의 구현이 있었다.

본 정상회담 참석자들은 준비된 올바른 인센티브와 함께 민간투자가 미국 경제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Global Roundtable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비디오는 [여기](#).



firstclimate²

Bank of America



Bloomberg

ErizonCapital

Calvert INVESTMENTS

citi

STATE STREET
Bentall Kennedy



the co-operators
A Better Place For You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민간간 차이점을 메우다-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 총회, 더반, 남아프리카공화국



COP17/CMP7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2011
DURBAN, SOUTH AFRICA

민간금융부문은 기후변화를 다루는 국제적 전략의 핵심 부분이어야만 한다. 금융기관들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 전문지식 및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넓게는 민간 부문, 특히 금융 시장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의 일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문제의 일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자료 및 전문지식과 이것들을 영원히 풀어낼 정책 수단은 좀처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협상에서 고려되고 논의되지 않으며, 은행, 보험기관 및 투자자들은 방관자로 남아있었다.

UNEP FI 회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집중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특정 이슈에 대해 정부간 기후 프로세스에 그들의 핵심적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바꾸고자 한다

-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기후 회복적 성장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에 효과적인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고안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다루기 위한 보험계의 리스크 관리 기술 동원
- 삼림 기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글로벌 자금 구축

자세한 내용은 [여기](#).



뱅킹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안내서가 지도안내를 제공

2011년 10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워싱턴 D.C.에서 출간된 UNEP FI 뱅킹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UNEP 선언서의 조항 별 세부 설명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각각의 조항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조항을 어떻게 은행들이 은행내부의 다른 여러 부서들에 걸쳐 일상 업무에 적용하는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 한 본 가이드는 UNEP FI 서명 은행 내 현재 관례의 실 예와 주요 자료의 참조를 제공한다. UNEP FI의 200이 넘는 회원들의 대다수는 은행계 기관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계 최대 투자자,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조치 요구

지난 달 말, 세계 경제 위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세계 최대의 투자자들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기후변화가 현재 혼란의 몇 배가되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인식하며, 정부와 국제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변화에 맞선 싸움에 새롭고 의미 있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촉구했다.



공동 선언서에서 20조 달러 이상의 자산에 해당하는 285명의 투자자 집단은 기후변화 솔루션에 민간 부문 투자를 격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 경제 시스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 조치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자자의 기후 관련 조치 지지는 9조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150명의 투자자가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 대표들의 행동을 촉구했던 2008년 11월 이래로 거의 2배 상승했다.

본 선언서는 세 개의 투자자 그룹과 UNEP FI가 의뢰한 보고서, [투자등급 기후변화 정책](#)의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보고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높아진 리스크 및 충분한 규모의 기술 배치를 보상할 적절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기후변화 해결책에 자본을 할당하도록 하는 투자등급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의 사무총장 Christiana Figueres는 "국가 정부는 저탄소 미래로 나아가길 의사를 명확히 시사해왔다. 그 지점에 충분히,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거대한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세계 경제 시스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및 보안과 주요 부분이 전세계 보통 사람들의 연금 및 생명 보험과 연결된, 글로벌 투자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글로벌 투자자 그룹은 이것을 분명히 보아왔다." 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광업 부문에 대한 최신 벤치마크 연구

UNEP FI, 독일 사회투자 NGO인 VBDO 및 국제 환경 그룹 Fauna & Flora International의 공동작업인 Natural Value Initiative (NVI)가 광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30개 기업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리의 벤치마킹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조사된 유사한 분석을 반복, 업데이트 한 것이다.



보고서, [Tread Lightly](#) 는 채굴 산업에 대한 이러한 이슈의 중요성, 현재의 통합 상태 및 기업과 투자자들이 그들의 활동 및 의사결정에 이 보고서를 보다 잘 통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몇몇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생물다양성 이슈의 물질적 리스크를 처리하는데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채굴 산업은 점점 더 그러한 리스크에 직면해있다. 이 이슈를 진취적으로 다루는 기업들과 그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기관들은 평판, 운영 및 재정 리스크의 보다 나은 관리와 연결된 미래에 경쟁우위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국채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생태계 요소의 포함을 목표로 하다

천연자원의 풍부함이 국가의 신용 등급과 채권 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 자원 다소비 형 경제는 등급 인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이달 초, UNEP FI는 국제 지속가능성 싱크탱크이자, 선두적 금융 기관인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 (Global Footprint Network)와 협력하여 국채의 리스크 모델 강화에 있어 천연자원회계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획기적 프로젝트의 출시와 함께, 위의 질문에 대한 해결방안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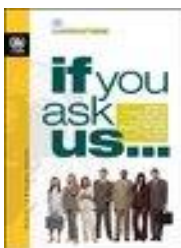
국채 프로젝트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외화로 발행되는) 정부채권에서 생태계 리스크와 국가 수준의 리스크간의 연계를 조사할 것이고, 신용 등급 기관, 투자자 및 금융 정보 제공기관들이 어떻게 생태계 자료를 그들 각각의 모델에 통합하는지 분석 방법론을 개발할 것이다. 특히, 이 분석은 국가의 인구 및/혹은 산업들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것 이상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해외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리스크를 살펴볼 것이다.

UNEP FI 총재 Paul Clements-Hunt “글로벌 금융 위기는 그 어떤 것 보다 채무증권 및 파생금융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리스크의 일부는 그야말로 그것을 이해할 우리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우리가 기후변화, 물 부족 및 천연자원의 남용에 의한 증권 리스크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천연자원의 사용이 국가의 핵심 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국가의 채권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를 양적, 조직적으로 고려하려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새로운 보고서, 전세계의 직원 몰입도에 빛을 비추다

지난 달 말 UNEP FI 워싱턴 D.C. Roundtable에서 착수된 UNEP FI 북아메리카 태스크포스 (Task Force)는 보고서 시리즈 중 *If You Ask Us... Making Environmental Employee Engagement*의 [파트2](#)의 출간과 함께, 전세계 환경적 직원 몰입도의 상태에 빛을 비추었다.



2010년 UNEP FI 회원들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의한 브리핑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다수가 이와 같은 관행이 시리즈의 파트1에서 결론지어졌던 북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진전을 만들었다며, 기관 내에서 환경적 직원 몰입도 (Environmental Employee Engagement, EEE)를 홍보한다.



EEE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내부 환경 관리의 기회를 분석해오는 동안, 몇몇 금융기관 역시 프레임워크를 그들의 주 비즈니스 전략에 성공적으로 통합시켰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마침내 환경적 직원 몰입도의 향후 모범 사례 및 도전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UNEP FI의 회원기관 중 73개의 응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근거한다. 본 결과는 마침내 환경적 직원 몰입도에서 앞선 모범 사례 및 도전에 대해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지속가능보험 회담을 위한 UNEP FI 원칙, 유럽에 상륙

지속가능보험원칙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UNEP FI PSI)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구적 글로벌 과정이 10월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지역에 도달했다.

세계의 선진 재보험 사 중 하나인 뮌헨리 (Munich Re)는 본부가 있는 독일, 뮌헨에서 유럽 회담을 주최했다. 본 행사는 유럽 보험 및 직업 연금 당국 (European Insurance &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유럽 보험 및 재보험 연맹 (European Insurance & Reinsurance Federation), 제네바 협회 (Geneva Association), Standard & Poor's, WWF 및 학계의 대표들을 포함, 보험업계 리더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했다.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계속된 본 행사는 뮌헨리의 CEO Dr Nikolaus von Bomhard가 주도하였고, 뮌헨리의 기업책임부서장 이자 UNEP FI 보험위원회장 Dr Astrid Zwick가 사회를 봤다. UNEP 기술산업경제국의 (Division of Technology, Industry & Economics) Sylvie Lemmet 국장, UNEP FI의 Paul Clements-Hunt 총재, 그리고 UNEP FI PSI & 보험위원회의 Butch Bacani 프로그램 리더가 UNEP을 대표했다.

유럽은 아시아를 마지막 목적지로 하는 글로벌 회담 과정의 여섯 번째 구간이다. 아시아 모임은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것이다. 본 행사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이 주최하고, 미쯔이 스미모토 보험 (Mitsui Sumitomo Insurance), 손보재팬보험 (Sompo Japan Insurance) 및 일본 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에 의해 지원된다.

UNEP FI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의 구축을 위한 보험산업의 획기적인 기여와 장기적 약속으로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2012 UN 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지속가능보험원칙](#)을 발표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콜롬비아 지속가능위원회, UNEP FI의 도움으로 탄생

올 12월, 지속가능금융 아젠다는 콜롬비아의 지속가능이슈 처리를 담당하는 콜롬비아 은행연합회 내 고유 조직의 탄생과 함께, 중대하게 추진 될 것이다. UNEP FI, Asobancaria (콜롬비아 은행 연합회) 및 콜롬비아 당국간 3자 회담에 의해 촉발된 지속가능위원회는 콜롬비아의 첫 번째 지속가능위원회가 될 것이다. 본 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브라질, 남아프리카 및 소수의 기타 국가들에서 비교할 만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창출한 유사 이니셔티브들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졌다. 본 조직은 Bancolombia, Bancoldex 및 Helm Bank를 포함한 다양하며 변화무쌍한 콜롬비아 은행의 대표들로 구성될 것이다.

본 위원회는 전국에 걸친 리스크 분석의 환경적, 사회적 측면 및 녹색 서비스, 상품 기획의 주류화와 높은 수준의 논의 및 정보 공유 활동을 통한 환경 효율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야심 찬 작업계획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콜롬비아 은행 연합회는 12월 2일 보고타에서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 분석 입문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다. 확정된 참석자는 콜롬비아 대통령실과 환경부 대표, 콜롬비아 금융감독기구의 규제담당자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의 리스크, 신용, 지속가능성 매니저들을 포함한다.

본 지속가능위원회는 콜롬비아 은행 연합회와 UNEP FI간의 협정 서명에 기인한다.

자세한 내용: la.lati.unepfi.org.



UNEP FI & PRI 공동 웨비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 11월 17일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대부분은 기존의 건물 보유량에서 발생한다. EU, 미국 및 다른 나라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건물의 주기 동안 책임 있는 행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일관성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 웨비나는 다음의 주요 이슈들을 검토할 것이다:

- 건물의 전체 주기 동안 부동산 투자자와 매니저, 브로커 및 사용자들의 책임 있고, 상호 강화하는 행동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도입될 수 있는가?
- 이러한 조치 중 지금까지 어떤 것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입증되었으며, 어떤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가?
- 책임 있는 행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탄소배출권제도'와 같은 시장 기반의 메커니즘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 표지와 측정기준은 정책 아젠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건물의 환경적 측정, 상표 및 기준의 표준화, 일관성 및 광범위함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가?

확정된 발표자는:

- Tatiana Bosteel, 지속가능성 책임자, Hermes Real Estate Head of Sustainability, Hermes Real Estate
- Sarah Turner, 전략 고문, Lend Lease

게스트는 11월 17일 오전 10시 (CET) 웨비나 참석에 초대되었다.

자세한 내용 및 등록은 [여기](#) 또는 [property \[at\] unepfi.org](mailto:property[at]unepfi.org).



가장 최근 UNEP FI 지속가능성 선언서에 준수하게 된 Banco Gen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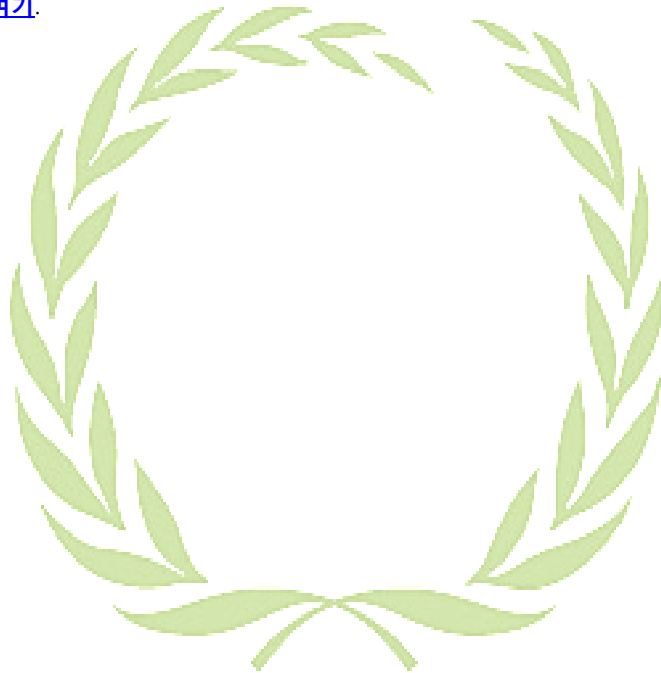


지난달 말, 파나마의 은행인 Banco General은 파나마에서 UNEP FI의 대열에 합류하는 첫 번째 기관이 되었다. 처음 파나마에서 공식화된 본 은행의 멤버십은 UNEP FI 2011 Global Roundtable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준비된 조인식 동안 확정 되었다.

“우리는 금융 운영이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도록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연합체의 일부가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으로써, 이와 같은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 Banco General의 부사장이자 총괄 매니저인 Raúl Alemán Zubieta는 전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금융의 참여의지는 지난 4년간 거대한 도약을 이뤄냈다. 우리는 Banco General이 기타 파나마의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준 전달자가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Banco General이 이와 같은 역할을 차지하는데 보여준 비전에 경의를 표한다,”고 UNEP FI의 Paul Clements-Hunt 총재는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UNEP FI, 11월 13일-15일 마이애미에서 열릴 FELABAN 연례 총회에서 연설

UNEP FI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라틴아메리카 은행 연맹 (FELABAN) 연례 총회의 XLV 에디션에서 라틴아메리카 은행의 총재들에게 연설할 것이다.

플로리다 국제 은행 연합회 (Florida International Bankers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준비된 FELABAN 총회는 라틴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유럽 및 아시아의 국제 은행가들과 만나 일을 하고 싶어하는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2000명이 넘는 은행가들을 끌어 모았다.

본 회의의 정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회장 및 지역 주요 은행의 CEO가 그들의 업계가 직면한 최신 트렌드와 도전과제 -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광범위한 UNEP FI 주도 설문조사의 예비 결과 포함 - 를 살펴보는 관리이사회이다.

BBVA 그룹과 Bancolombia를 포함, UNEP FI 회원 은행들은 11월 14일에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 그들의 경험 또한 공유할 것이다.

올 해 초 조인된 UNEP FI와 FELABAN간의 획기적 협정에서 두 기관은 장래에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성 구현을 향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CalPERS, 전체 자산 클래스에 걸쳐 ESG 통합 드라이브 강화

8월 15일, CalPERS 투자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향상을 위해 ESG 요소를 어떻게 연금 기금의 투자 절차에 가장 잘 통합시키는지 검토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 1년간, CalPERS 투자위원회는 모든 자산클래스에 걸친 투자 의사결정에 ESG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개발해 오고 있다. 워크숍 동안, CalPERS 투자위원회는 우선사항과 ESG 통합 계획 개발에 대해 이사회 도움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금융기관의 국제통합보고위원회 파일럿 프로그램인 투자자그룹 합류 요청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 국제통합보고위원회)는 기업의 문화에서 통합보고를 분석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통합보고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는 선발된 기업들에게 기업보고의 신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 할 기회를 제공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보고의 원칙과 실질적 측면이 통합보고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창출할 의도로 시도되고 시험될 것이다.

통합보고의 목적은 기관의 전략, 거버넌스 및 재무실적과 기관 운영 내의 사회, 환경 및 경제적 맥락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다. IIRC의 프레임워크는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기관이 그들의 가치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창출하고 지속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이슈의 처리를 지원할 것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보고 혁신의 옹호자로서 기업들이 통합보고 원칙의 적용을 시작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또는 [joris \[at\] theiirc.org](mailto:joris[at]theiirc.org).

CASBEE 녹색 부동산 용자 틀 출시

[CASBEE for Market Promotion](#) 은 최근 [UNEP FI Property Working Group](#)이 금융 전문가와 환경 전문가를 갈라놓는 간극을 메우고 부동산 투자의 환경적 측정에 대한 회담을 진전시키도록 하는 요청 후에 도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연락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communications \[at\] unepfi.org](mailto:communications[at]unepfi.org).





이 뉴스레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시스템 분야 내 투자 업데이트를 다룬 첫 번째 2012년 호입니다. 다음 뉴스레터를 위한 여러분의 피드백, 제안 및 조언을 환영합니다.

UNEP FI의 생물다양성 업무에 대하여

UNEP FI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금융서비스 부문의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서비스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처리를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유용한 웹사이트

[Species Banking](#), [Ecosystem Marketplace](#), [World Resources Institute](#), [Times Weekly Column on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Finance](#),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자연 자본 선언: NAB과 Rabobank가 앞장서다



네덜란드의 Rabobank와 National Australia Bank (NAB)가 자연 자본 선언 (Natural Capital Declaration, NCD)의 첫 번째 서명기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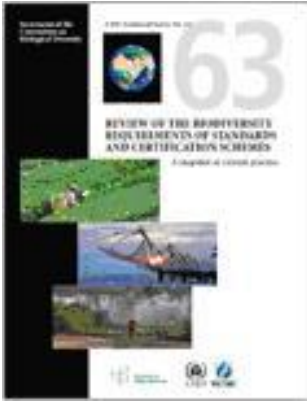
NCD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일하기 위한 의향서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UNEP FI, Global Canopy Program 및 제툴리오 바르가스 재단 경영대 지속가능성연구 센터 (Center for Sustainability Studies of the Business Administration School of the Getulio Vargas Foundation, FGV-EAESP)에 의해 진전되고 있다.

Rabobank와 NAB의 서명은 금융 커뮤니티 고위 대표들이 참석한 런던 회의 중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배서인과 참석자 모두 다른 금융기관들이 같은 약속을 수행하고, 공통된 목소리를 갖는 것이 역사적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 리오20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길에 결연한 리더십을 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UNEP FI는 자연 자본 선언의 공개 지지를 고려하기 위해 PRI 서명기관 및 보다 넓은 금융 커뮤니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곧 NCD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UNEP WCMC/CBD 보고서: 생물다양성 기준 리뷰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CBD COP 10)는 생물다양성조약의 전진에 관한 여러 중대한 업적을 확인했다. 업적 중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민간부문과 보다 공식적으로 관계를 맺기로 한 당사국들의 결정이다 (Decision X/21).

이 결정은 기업이 선량한 생태계 다양성 및 지속가능 관행을 그들의 일과에 참여시키는 것을 장려할 것이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기업,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보다 긍정적인 결과의 창출을 권장할 것이다.

UNEP-WCMC의 연구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다양한 기준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생물다양성 보호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초기 개요 취한다. 이 작업은 기업들에게 어떤 기준(들)이 그들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다양한 기준의 무엇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겨냥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국가신용도에 생태계 리스크 통합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 (Global Footprint Network)와 UNEP FI가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및 금융정보 제공기관을 포함한 여러 선진 금융기관들과 함께 생태계 리스크와 외화로 발행되는 국고채 간의 연결고리를 조사하는 변환 프로젝트 합작을 위해 작업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국고채의 신용 리스크 평가에 관련 있는 생태계 리스크의 금융 물질성을 평가하고, 신용평가기관, 투자자 및 금융정보 제공기관이 그들 각각의 모델에 생태계 데이터를 통합하도록 하는 방법론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 프로젝트는 외화로 발행되는 국고채 평가 방식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며 리스크가 고려된 이해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생태적 채권자 및 국가채무자를 위해 더 높은 자원 안정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관들은 따라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중요한, 보다 나은 ESG 이슈 포함을 향해 작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다면 다음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vo.Mulder \[at\] unep.org](mailto:Ivo.Mulder@unep.org).

자세한 내용은 [여기](#).

파트너:



UN-REDD, Lessons Learned 및 정책업무 (Policy Brief) 시리즈 출시 Launch of UN-REDD Lessons Learned and Policy Brief Series



지난 3년간 REDD+의 준비와 시행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 협력 파트너 국가들의 초기 경험에서 도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UN-REDD 프로그램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얻은 교훈에 중점을 둔 12페이지 분량의 첫 번째 발행물 "Lessons Learned" 시리즈를 출시했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되어있는 "UN-REDD Lessons Learned: Asia-Pacific" 이라는 제목의 책자는 2011년 11월 30일 더반에서 열린 REDD+ CEB 사이드 이벤트의 참석자들에게 제출되었고, 또한 UN-REDD 웹사이트와 COP17 첫 주 동안 REDD 프로그램 부스에서도 소개되었다.



"REDD+ and a Green Economy: Opportunities for a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 제목의 UN-REDD 프로그램의 첫 정책업무 또한 2011년 11월 30일 더반에서 열린 REDD+ CEB 사이드 이벤트에서 출시되었고, UN-REDD 웹사이트와 COP17 첫 주 동안 REDD 프로그램 부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증명 및 생태계 다양성 웹 캐스트: 2월 2일

KPMG 이사 Jerwin Tholen는 네덜란드 정부의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대표하여 외교부와 Agentschap-NL이 KPMG에게 의뢰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웹 기반 행사를 조정할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관련한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인증의 유효성 이해의 필요성
2. 이러한 논쟁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경영, 생물다양성 및 인증제도에서의 주된 동향
3. 정부, 기업 커뮤니티, 인증제도 및 NGP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증제도의 유효성에 기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웹 기반 대화형 행사는 2012년 2월 2일, 목요일 14:00 에서 16:00 (CET)까지 열릴 예정이다. 여러분은 행사에 앞서 설명과 함께 행사에 입장하기 위해 필요한 웹 링크를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버전의 보고서를 위한 링크도 제공될 것이다. 본 행사는 참석자들이 특정한 사항에 대해 논의를 촉발시키고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회의 이전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nl-fmcertificationforb\[at\]kpmg.nl](mailto:nl-fmcertificationforb[at]kpmg.nl) 으로 Karrine Basso에게 보내주십시오. 1월 27일 금요일 전에 회답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여러분의 지인 중 생물다양성과 인증제도에 참여해있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본 행사로의 초대를 전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행의 생물다양성 (B4B) 워크숍: 3월 1-2일

Banco do Brasil은 3월 1-2일 동안 두 번째 B4B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다. 지역 워크숍은 어떤 금융기관에게나 열려있으며, 상파울로, 요하네스버그, 싱가포르, 런던 및 베이징을 계획으로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2011년 10월 말 [적도원칙연합](#), 세계야생동물기금 (WWF) 및 비즈니스&생물다양성 상쇄 프로그램 (Business & Biodiversity Offsets Program, BBOP)은 은행이 자연의 가치를 대출 결정에 포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선구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브라질 및 전세계에서 환경 아젠다는 점점 더 관련 있어지고 있다. 이 추세를 따라서, 브라질의 금융부문은 포트폴리오 대출과 사회적, 환경적 성과 내에서 최고의 국제 관행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증가하는 자원의 지분이 상당한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나타내는 경제부문에 투입될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Água Brasi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Banco do Brasil은 B4B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한, 브라질 은행 커뮤니티로의 초대를 확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B4B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웹 기반의 자원 센터, 지역 워크숍 동안 진행되는 트레이닝 코스, 트레이닝 설명서 및 분야와 지리에 걸친 일련의 사례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파트너: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TEEB 컨퍼런스: 3월 19-22일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TEEB](#))은 생물다양성의 이득을 향한 관심을 이끌고, 생물다양성의 실종과 생태계 저하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을 강조하며, 과학, 경제 및 정책 분야의 행동 지향적 전문지식을 단결시키기 위한 주요 국제 이니셔티브이다.

2009년 이래로, TEEB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네 개의 주요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보고서는 상당히 많은 현지, 지역, 국가 및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의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TEEB 보고서 발간 2년 후, '라이프치히 TEEB Conference 2012'가 이 발전 사항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해당 주제의 여전히 자라나는 관심을 촉진시킬 것이다.

TEEB은 리서치, 정책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독일 라이프치히로 초대해 환경적 평가, 생태계 서비스 및 과학-정책 과정의 시점의 기술적 수준을 논의하고자 한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TEEB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 및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경제학, 의사결정 및 환경 간 새로운 합의를 향해 그들의 발견사항, 경험 및 접근법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 TEEP 뉴스를 구독하여 TEEB과 관련된 국가, 지역 및 비즈니스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및 뉴스에 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act

생물다양성에 관한 UNEP FI 업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biodiversity@unepfi.org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KB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KB 국민은행 (은행장 민병덕)은 'KB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이하 KB-GEMS)'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KB-GEMS는 2009년 금융권 최초로 개발하여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시행한 'KB탄소배출량관리시스템'을 2년여 동안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KB-GEMS를 통해 사용 장소 별, 사용 기간별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활동 및 결과 등록, 미래 배출량 예측 기능을 통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관리를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스템 오픈으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에서부터 감축목표의 이행, 보고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환경·사회·지배구조 '최고 등급' 인정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기업의 녹색경영체제(GMS:Green Management System)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지식경제부가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장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범인증을 실시했으며, 지난 16일부터 정식 인증제도가 시행됐다. 인증 범위는 금융(여신·수신) 및 기타금융 관련 서비스로 대구은행이 획득한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은 본점과 연수원, 유형별 대표 점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대구은행 전 범위에 걸쳐 인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 2008년 3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DGB STOP CO2플랜'을 수립, 실천해 나가는 것을 비롯, 2009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DGB금융그룹도 2011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CDP)에서 금융권 리더기업 3년 연속 수상 및 2011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JSI) Asia & Pacific에 2년 연속 편입되는 등 국내 금융권에서 지속가능경영과 환경경영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삼성화재, 장애인 재능 키워주고 쪽방촌 지원

삼성화재(사장 김창수)는 판매조직과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경영을 실천 중이다.

삼성화재는 1994년 사회봉사단을 발대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업계 본질과 부합되는 `교통문화사업`을 대표 공헌사업으로 지정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사고 유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는 행정안전부와 MOU를 체결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천사의 날개 기증운동`을 전개했다. 회사는 `삼성화재 큰사랑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해 순직경찰관 유자녀를 위해 매년 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기존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통사고 예방물품 지원 사업을 교통안전 교육, 학교 통학로 교통시설물 보수활동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도 전개했다. 2회째 `뽕고아뽕고` 장애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해 음악적 재능을 지닌 장애 청소년들에게 음악적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는 매년 2~3회의 분양교육을 통해 안내견을 기증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149마리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에게 기증했고 지속적인 안내견 캠페인을 통해 안내견 공공시설 접근 및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화재 전 임직원은 지난해 10월 `자원봉사대축제` 기간에 나눔활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 자원봉사기금인 `드림펀드` 운영을 통해 연간 약 4억원가량의 기금을 마련해 결연 봉사처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농촌마을 105곳과 결연식을 맺고 마을 방문 및 농산물 구입을 시행 중이다.





신한銀, '2011 아주경제 금융증권대상' 경영혁신부문 대상 수상

서진원 은행장은 "'브랜드경영'과 '녹색금융' 및 '페이퍼리스'라는 신한은행의 경영 키워드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신한은행은 올해 은행권 최초로 브랜드경영을 선포하고 브랜드전략본부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은행의 녹색경영에 관해서는 "미래산업으로 녹색금융을 선정하고 친환경 경영활동 및 금융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적평가대회에서 사용한 플래카드를 에코백으로 만들어 재활용하고, 행사 진행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전국에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행사로 인정받았다. 또 올 하반기 5000억원 한도로 신녹색기업대출을 출시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5월 '2011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비사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종이문서 감축을 위한페이퍼리스 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회의 및 보고서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문서 출력 없이도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졌다.



우리은행, 인터넷·스마트폰 전용 'iTouch패키지' 출시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인터넷·스마트폰 거래로 절감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비대면채널 전용상품 'iTouch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패키지는 종이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상품으로 'iTouch우리통장', 'iTouch그린적금', 'iTouch우리예금'의 3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iTouch우리통장'은 우리그린신용카드나 우리V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결제 계좌로 이용하면 100만원까지 최고 연 3.5%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가 월30회 면제된다.

'iTouch그린적금'은 우리그린신용카드 사용액 및 환경부 등에서 에너지 절감 시 제공하는 에코머니포인트를 적금에 입금해 포인트에도 이자가 쌓이도록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환경관련 포인트를 적금에 입금해 적금 금리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은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Touch우리예금'은 가입자가 늘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공동구매형식의 정기예금으로, 가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일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하나은행, 베트남 숲 조성금 2000만원 기부



하나은행(행장 김정태)은 임직원이 참여해 '걷고 기부하기' 캠페인으로 적립한 기부금 2000만원을 베트남 해안지역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국제연합환경계획(UNEP)한국위원회에 26일 전달했다.

김정태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과 김재범 UNEP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걷고 기부하기'는 하나은행이 2009년부터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임직원이 참여해 만보계로 본인의 걸음수를 알리고 열 걸음 당 1원씩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베트남의 맹그로브 나무는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해안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이 기부금은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1200만달러 금융 지원



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은 OCI(주)가 미국 뉴저지주에 추진 중인 총 9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1단계 개발사업에 1200만달러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단지 건설은 뉴저지주 Vineland시에 3.0MW급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500만 달러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측은 "이번 건설건은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 최초의 지원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태양광 등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시설투자 지원 및 후발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위한 M&A 등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쳐 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제공은 태양광산업 후발주자로서 태양광 발전사업 수행실적이 부족한 우리기업이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시장 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녹색기업들이 조선산업 사례를 거울삼아 태양광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현 위기상황을 세계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혀 세계시장에 진출할 기회로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녹색 금융리더로서 국내 녹색산업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3조 8000여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이를 확대, 5조원의 금융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 녹색할인제도 앞세운 친환경 녹색보험

현대해상의 친환경 녹색보험인 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은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녹색할인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자가 종이에 인쇄된 약관/증권이 아닌 이메일로 약관/증권을 수령하면 초회 보험료의 9%를 할인받을 수 있다.

H 현대해상

또 탄소배출 저감활동에 동참하는 에코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가입 후 1년간 납입보험료의 1%를 할인해 준다. 에코드라이버는 탄소배출이 전혀없는 자전거 이용자(자전거 관련 특약 가입자) 또는 자동차 10년 무사고운전자가 해당된다.

이 상품은 8대 중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한정 지급됐던 기존 형사합의지원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로 변경해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함으로써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만원부터 6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담보도 신설됐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전거 담보를 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자전거 탑승 중에 생긴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및 간병자금, 자전거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때의 형사합의금,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 49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

